

홈 > 불교

## 상월결사 2주년 천리순례 회향..."포교만이 살길"

정영석 기자 | 입력 2021.11.11 17:54 | 수정 2021.11.12 01:11 | 댓글 0

가 가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앵커

한국불교 중흥 운동인 상월결사 2주년과 지난달 펼쳐진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를 회향하는 기념식이 봉행됐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위기의 한국불교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포교'라며 불법홍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내디딘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

### 최신뉴스

- 사회 | 45만여명 응시 '수능'성료..주말부터 대학...
- BBS PLAZA | 김인식 사장, "농어촌 현장의견 적극...
- 정치 | 청와대, "일본 한미일 회견 불참 매우 이례...
- 지방사 인터뷰 | [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 지리...
- 전국 | [코로나19] 제주, 초등학교 잇따라 '집단감...

### 포토뉴스



45만여명 응시 '수능'성료..주말부터 대학...

### 인기뉴스

- '제 18회 추억의 증장축제' 18일 개막...비대면
- 경기교육청, 수능일 버스 파업 예고에 촉각..."도
- [전국네트워크] 광주·전남 학생 확진 속출...수능
- 2022 수능, 51만여 수험생...수학 치른뒤 점심시
- 부산 수능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부정행
- 제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문선희 작가

423km에 이르는 고행의 발걸음을 한 장에 간직한 증거가 박수 속에 전해졌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1조였던 전등사 주지 동명스님을 시작으로 19일 순례를 완보한 사부대중에게 일일이 증거를 전했습니다.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새 14명 우바이 26명 등 사부대중 95명이 함께 출발했고, 88명이 전 구간을 걸었습니다.

완보증서는 참여했던 대중의 이름이 새겨진 책으로 제작됐습니다.

[호산스님 /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총도감: 차별 없이 길에서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원력과 신심을 키웠습니다.]

천리 순례는 발길 닿는 지역 사찰과 주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원만 회향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에게는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한 점,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에게는 불교중흥에 힘을 보탠 공로로 각각 감사패와 죽비가 수여됐습니다.

[호산스님 /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총도감: 저희 순례단을 위해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지원하였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주신 도반들과 지역 주민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동국대학교 중흥과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후원 등 중단 현안 추진을 위한 기금이 전달됐고, 특히 역사적인 천리순례의 다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보도한 BBS불교방송 등 교계 언론사에도 발전 기금이 전해졌습니다.

기금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이 기증한 소장 작품들로 최근 동국대에서 진행된 선사화전 '새로운 인연'을 통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기련 /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운영지원단장: 특히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 44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 2천 2백만 원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리순례를 이끈 자승스님은 지금의 한국불교를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며, 오직 포교만이 살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승스님 / 상월선원 회주: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교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는 낯뜨거운 소리를 하지 않는 한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포교에 모든 것을 걸고 이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상월결사는 이제 본격적인 불교 중흥 운동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호 기자)



정영석 기자 youa14@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8 HUG "빌라 세입자도 모 바일로 전세보증 가입



### BBS 칼럼

-  전경윤의 '세상살이'
-  전영신의 '시선'
-  신두식의 '공감노트'
-  배재수의 '크로키'
-  이현구의 '스윗 스팟'
-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추천  
0



반대  
0

### 당신만 안 본 뉴스

"애플 포항유치 이끈 민간네트워크...유치효과 ...  
 송가인, 도경완이 함께하는 은혜사 '중약 팔공...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  
 전국 사찰에 '정청래 규탄' 현수막 걸린다  
 동국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역대 첫 '톱10' ...  
 '제 18회 추억의 총장축제' 18일 개막...비대면 ...  
 [단독]"한국 요소난 이렇게 심했어?"...申 당국, ...



###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  
 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 주요기사



45만여명 응시 '수능'성  
 료..주말부터 대학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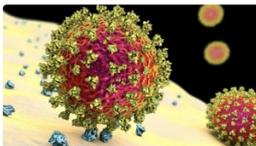
김인식 사장, "농어촌  
 현장의견 적극 반영..실



청와대, "일본 한미일  
 회견 불참 매우 이례



[광주BBS 빛고을 아침  
 저널] 지리산 화엄사 빛



[코로나19] 제주, 초등  
 학교 잇따라 '집단감



서욱 국방장관, 울릉도  
 찾아 대비태세 점검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BS